

# 치위생계열 학생과 비 치위생계열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윤성욱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Sung-Uk Yoon(sunguk3794@naver.com)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윤리가치관을 확립하여 치위생계열 학생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치위생계열 대학생 97명, 비치위생계열 학생 100명을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은 치위생계열 학생과 비치위생계열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SPSS/win 17.0을 사용하여 t-test, ANOVA, Scfefe 검정,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치위생계열 학생의 윤리의식에 대한 평균점수는 2.87점이었고 비치위생계열 학생의 평균 점수는 2.82점 이었다. 치위생 및 비치위생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차이를 볼 때 치위생계열 학생은 태아진단, 신생아생명권, 태아의 생명권, 뇌사에 대하여 높게 나타났고 반면 장기의식에 대한 인식은 낮게 조사되었다,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치위생 계열 학생은 윤리적 가치관과 생명의료윤리 가치관 확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치위생계열 학생은 종교와 생명의료윤리 인지정도가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계열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 중심어 : | 생명의료윤리 | 치위생계열 학생 | 치과위생사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educating dental hygiene students by establishing a desirable sense of ethics values. In this descriptive research, 97 dental hygiene students and 100 non-dental hygiene students (in other health related fields) from Daegu-Gyeongbuk City were selected. Tool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with SPSS/WIN 17.0 version. Average scores for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dental hygiene students was 2.87, and in non-dental hygiene students, 2.82. When differences i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dental hygiene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were compared, dental hygiene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prenatal diagnosis of fetus, right to life of newborn, right to life of fetus, brain death, artificial abortion, but significantly lower for organ transplantation. Variables which influence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were ethical values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and intent to attend a class in biomedical ethics, quantity and quality of experience of hearing for biomedical ethics and religion in the non-dental hygiene students. Continuing educational programs need to be considered and attention given to the significant variables that can promot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dental hygiene students.

■ keyword : | Biomedical Ethics | Dental Hygiene Student | Dental Hygienist |

\* 이 논문은 2016년 김천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접수일자 : 2017년 01월 20일

수정일자 : 2017년 02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2월 01일

교신저자 : 윤성욱, e-mail : sunguk3794@naver.com

## I. 서론

오늘날 생명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은 태아의 검진 뿐만 아니라 질병치료를 통한 인간의 생명연장 및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새 생명 복제에 까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보다 나은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종래의 개념까지 변화를 주고 있다[1]. 생명의료윤리는 의학 생물학 유전학과 같은 과학적 지식과 더불어 철학 윤리학 종교학 인문학 등의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명에 관한 다양한 윤리 문제들에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리는 복합적 학문이다[2].

생명의료윤리 교육과정에는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그 영역이 방대하다[3]. 또한 실제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은 매우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있어 올바른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4][5].

치의학의 발달로 야기될 수 있는 기술과 윤리적 측면에서의 갈등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기도 하며, 치과 의료계 전반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치과위생사도 전문직으로서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생명윤리는 더 이상 특정직업을 위한 윤리가 아니라 인류공동체의 사회윤리, 만인의 윤리로 인간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위한 윤리이다[6]. 또한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 업무와 진료보조를 담당하고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윤리적 책임감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업인이다[10].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은 구강병 예방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습득에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윤리적 직무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다[7].

치위생과 대학생이 어떠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졸업 후 행하는 전문적인 구강예방행위와 직결되며, 현명하고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됨으로 더욱 중요하다[8]

생명의료 관련 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1986년 안락사

를 시작으로 1991년부터 연명치료중단과 죽음태도, 자살, 1996년부터 생명의료 윤리, 장기기증, DNA관련 연구로 이어졌다[9]. 국내에 생명의료윤리관련 치위생 연구를 살펴보면 윤리적 책임감[10]과 윤리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11], 치위생과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내용의 연구가[12][13] 대부분으로 비 치위생과 대학생들을 비교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태이다.

생명의료 윤리 문제가 비단 보건·의료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 되고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신속한 교류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개념과 생각을 바꾸고 있어[8] 비 치위생대학생을 비교대상으로 치위생계열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에 의식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계열 학생과 비 치위생계열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수준 및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치위생계열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계열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생명의료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수준을 파악한다.
- 생명의료의식의 하위영역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경북지역 소재의 일개 전문대학 대학생을 임의로 편의 표본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은 치위생계열 학생은 치과 병·의원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자료 표본수는 G power program 3.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검정력 95.1%에서 t-test에 필요한 표본수가 116명으로 나왔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모집하였으며, 치위생계열 학생

3학년 100명, 비 치위생계열 학생 100명을 조사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9월 5일부터 12일 까지이었으며,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과 설문지 내용, 익명성보장 및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행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200명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3부를 제외하고 19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연구도구

### 2.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도구는 의료계열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8] 도구를 일반적 특성 4문항, 생명의료윤리관련 특성 6문항으로 수정하고 생명의료윤리의식은 하위영역 8개영역의 4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부정문항을 역산처리 하였으며 ‘찬성’ 4점, ‘대체로 찬성’ 3점, ‘대체로 반대’ 2점, ‘반대’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0.76이었으며, 본 연구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Cronbach's alpha 값은 0.72 이었다.

### 2.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K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윤리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윤리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하였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위영역들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III. 결 과

### 1.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윤리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 [표 1]과 같았다. 종교는 치위생계열 학생

에서 종교가‘없다’라고 응답한 자가 58.8%였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22.59, p=.000$ ). 비치위생 계열 학생은 35.0%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흡연 유무에 관하여 치위생계열 학생은 ‘피우지 않는다’가 76.3%, 비 치위생계열 학생은 61.0%로 응답하였다. 음주의 경우 치위생계열 학생은 ‘마신다’가91.8%, 비치위생 계열 학생은 61.0%로 조사되었다( $\chi^2=25.69, p=.000$ ). 운동의 경우는 치위생계열 학생의 경우 ‘하지 않는다’ 44.3%, 비 치위생계열 학생은 64.0%였다( $\chi^2=7.67, p=.030$ ).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은 치위생계열 학생은 ‘매우 확고하다’가 18.6%, ‘확고하다’ 29.9%였고 비 치위생계열 학생의 경우 ‘매우 확고하다’ 15%, ‘확고하다’43.0%로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8.942, p=.030$ ). 생명의료윤리에 관하여 들어본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치위생계열 학생과 비 치위생계열 학생은 각각 48.5%, 29.0%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7.864, p=.005$ ).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치위생계열 학생은 42.2%, 비치위생계열 학생은 43.0%가 ‘알고있다’로 응답하였고( $\chi^2=24.311, p=.0000$ ),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어지는지에 대하여 치위생계열학생은 ‘충분하지 않다’가 47.4%, 비 치위생계열 학생은 ‘충분하다’가 42%로 나타났다. 생명의료윤리에 대하여 고민해 본 경험에 대한 질문은 치위생계열 학생은 ‘없다’ 70.1%, 비치위생계열 학생은 63.0%로 나타났으며,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 참여 유무에 대하여는 치위생계열 학생은 61.9%, 비치위생계열 학생은 50.0%참석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2. 생명의료윤리 의식수준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윤리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 [표 2]과 같았다. 치위생계열 학생 ( $2.87\pm 0.259$ )과 비치위생계열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 $2.82\pm 0.273$ )은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생명의료윤리 의식 차이를 하위영역에 따라 살펴보면, 치위생계열 학생은 ‘태아진단’, ‘신생아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 ‘뇌사’, ‘인공임신중절’, ‘인공수정’, ‘안락사’, ‘장기이식’ 순이며. 비치위생계열 학생은 ‘태아진단’, ‘신생아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 ‘인공임신중절’, ‘인공수정’, ‘뇌사’,

‘장기이식’, ‘안락사’로 나타났다.

치위생계열 학생과 비치위생계열 대학생의 생명의료 의식은 ‘신생아 생명권’ ( $t=2.042, p<.05$ ), ‘안락사’ ( $t=5.633, p<.001$ )로 치위생계열 학생이 비치위생계열

학생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

Characteristics	Categories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n (%)	n (%)	n (%)
religion	Protestant	15(15.5)	18(18.0)	33(16.8)
	Catholic	2(2.1)	13(13.0)	15(7.6)
	Buddhist	21(21.6)	20(20.0)	41(20.8)
	None	57(58.8)	35(35.0)	92(46.7)
	Others	2(2.1)	14(14.0)	16(8.1)
Smoking	Yes	23(23.7)	39(39.0)	62(31.5)
	No	74(76.3)	61(61.0)	135(68.5)
Drinking	Yes	89(91.8)	61(61.0)	150(76.1)
	No	8(8.2)	39(39.0)	47(23.9)
Exercise	Yes	54(55.7)	36(36.0)	90(45.7)
	No	43(44.3)	64(64.0)	107(54.3)
Ethical values	Very firm	18(18.6)	15(15.0)	33(16.8)
	Sometimes confused	29(29.9)	43(43.0)	72(36.5)
	Depends on the situation	48(48.5)	34(34.0)	82(41.6)
	Not realistic	2(2.1)	8(8.0)	10(5.1)
The experience of hearing for biomedical ethics	Yes	47(48.5)	29(29.0)	76(38.6)
	No	50(51.5)	71(71.0)	121(61.4)
I know about biomedical ethics	I know very well	1(1.0)	18(18.0)	19(9.6)
	I know a little	40(41.2)	25(25.0)	65(33.0)
	I have heard about it	43(44.3)	31(31.0)	74(37.6)
	Not interested	13(16.4)	26(26.0)	39(19.8)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present educational system of biomedical ethics	Very enough	6(6.2)	11(11.0)	17(8.6)
	Enough	31(32.0)	42(42.0)	73(37.1)
	Not enough	46(47.4)	36(36.0)	82(41.6)
	Very not enough	14(14.4)	11(11.0)	25(12.7)
The experience of conflict for biomedical ethical problem	Yes	16(16.5)	21(21.0)	37(18.8)
	No	68(70.1)	63(63.0)	131(66.5)
	not interested	13(13.4)	16(16.0)	29(14.7)
The intent to attend in class for biomedical ethics	Yes	60(61.9)	50(50.0)	110(55.8)
	No	11(11.3)	23(23.0)	34(17.3)
	not interested	26(26.8)	27(27.0)	53(26.9)
Total		97(100.0)	100(100.0)	197(100.0)

표 2. 생명의료윤리 의식수준

Characteristics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	p
	M (SD)	Rank	M (SD)	Rank		
Right to life of fetus	2.97(.445)	3	2.96(.455)	3	.206	.837
Artificial abortion	2.80(.423)	5	2.76(.481)	4	.684	.495
Artificial insemination	2.79(.499)	6	2.83(.390)	5	-.623	.534
Prenatal diagnosis of fetus	3.74(.509)	1	3.59(.535)	1	2.042	<.05
Right to life of newborn	3.38(.422)	2	2.99(.548)	2	5.633	<.001
Euthanasia	2.66(.405)	7	2.68(.513)	8	-.365	.716
Organ transplantation	2.58(.568)	8	2.71(.589)	7	-1.591	.113
Brain death	2.81(.496)	4	2.72(.552)	6	1.260	.209
Biomedical ethics	2.87(.259)		2.82(.273)		1.490	.138

3. 생명의료윤리 인식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

생명의료윤리 인식의 하위영역 8가지에 관한 상관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Pe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았다. ‘태아의 생명권’과 상관관계가 있는 하위영역으로는 ‘인공임신중절’(p< .01), ‘인공수정’(p< .01), ‘태아진단’(p< .05), ‘신생아 생명권’(p< .05)였으며, ‘인공임신중절’은 ‘인공수정’(p< .01), ‘태아진단’(p< .01), ‘안락사’(p< .05), ‘장기이식’(p< .01), ‘뇌사’(p< .05)로 조사되었다. ‘인공수정’은 ‘태아진단’(p< .01), ‘장기

이식’(p< .05), ‘뇌사’(p< .01)과 관계있으며, ‘태아진단’은 ‘신생아 생명권’(p< .01), ‘뇌사’(p< .05), ‘신생아 생명권’은 ‘뇌사’(p< .05)와 ‘안락사’(p< .01)는 ‘장기이식’(p< .01), ‘장기이식’은 ‘뇌사’(p< .0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치위생 계열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인식 차이

치위생계열 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생명의료관련 특

표 3. 생명의료윤리 인식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

Characteristics	1	2	3	4	5	6	7
1. Right to life of fetus	1						
2. Artificial abortion	0,278**	1					
3. Artificial insemination	0,381**	0,326**	1				
4. Prenatal diagnosis of fetus	0,219*	0,39**	0,445**	1			
5. Right to life of newborn	0,240*	-0,042	0,154	0,251*	1		
6. Euthanasia	-0,118	0,248*	-0,002	0,033	0,094	1	
7. Organ transplantation	0,059	0,304**	0,212*	0,160	-0,004	0,331**	1
8. Brain death	0,195	0,244*	0,301**	0,358**	0,300**	0,105	0,253*

표 4. 치위생계열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인식

Characteristics	Categories	M (SD)	t/F (Scheffe)	p
religion	Have	2,80(0,22)	-.923	0,108
	None	2,85(0,34)		
Smoking	Yes	2,82(0,22)	0,033	0,158
	No	2,81(0,22)		
Drinking	Yes	2,79(0,21)	-.715	0,556
	No	2,83(0,30)		
Exercise	Yes	2,85(0,27)	1,606	0,967
	No	2,76(0,26)		
Ethical values	Very firm	2,99(0,32)	3,623	0,016 <.05
	Sometimes confused	2,76(0,31)		
	Depends on the situation	2,84(0,29)		
	Not realistic	2,68(0,28)		
The experience of hearing for biomedical ethics	Yes	2,75(0,25)	0,577	0,449
	No	2,84(0,27)		
I know about biomedical ethics	Yes	2,79(0,22)	3,152 (c)a, b)	0,047 <.05
	No	2,76(0,21)		
	Not interested	2,93(0,36)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present educational system of biomedical ethics	Enough	2,81(0,29)	-0,388	0,339
	Not enough	2,83(0,25)		
The experience of conflict for biomedical ethical problem	Yes	2,89(0,28)	1,214	0,302
	No	2,79(0,27)		
	not interested	2,82(0,25)		
The intent to attend in class for biomedical ethics	Yes	2,82(0,20)	0,124	0,883
	No	2,83(0,37)		
	not interested	2,79(0,30)		

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표 4]와 같다.

치위생계열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경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2.85점), 흡연을 하는자가(2.82점), 음주를 하지 않는가가(2.83점), 운동을 하는 자가(2.85점)으로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생명의료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조사한 결과 윤리적가치관이 ‘매우 확고하다’가 2.99점, ‘확고하다’ 2.76점, ‘상황에 따라 바뀐다’ 2.84점, ‘관심없다’ 2.68점으로 윤리적 가치관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 의식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t=3.623, p<.05$ ).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알고있다’가 2.79점, ‘모른다’ 2.76, ‘관심없다’ 2.9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t=3.125, p<.05$ ).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의 충분히 이루어 지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2.81점, ‘충분하지 않다’는 2.83점으로 나타났으며,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문제로 갈등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 응답자가 2.89점, 생명의료윤리교육의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참석하겠다’ 응답자가 2.82점, ‘참석하지 않겠다’ 2.83점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5. 비치위생 계열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 차이

비치위생계열 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생명의료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표 5]와 같다.

비치위생계열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경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2.88점,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2.286점 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0.447, p<.01$ ). 흡연을 하는 대상자가(2.92점), 음주를 하지 않는가가(2.87점), 운동을 하는 자가(2.86점)으로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생명의료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조사한 결과 윤리적가치관이 ‘매우 확고하다’가 2.98점, ‘확고하다’ 2.81점, ‘상황에 따라 바뀐다’ 2.87점, ‘관심없

표 5. 비 치위생계열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

Characteristics	Categories	M (SD)	t/F	p
religion	Have	2.86(0.19)	-0.447	0.007 <.01
	None	2.88(0.29)		
Smoking	Yes	2.92(0.29)	0.930	0.09
	No	2.86(0.24)		
Drinking	Yes	2.85(0.12)	-0.258	0.141
	No	2.87(0.26)		
Exercise	Yes	2.88(0.30)	0.322	0.152
	No	2.86(0.22)		
Ethical values	Very firm	2.98(0.20)	1.542	0.209
	Sometimes confused	2.81(0.32)		
	Depends on the situation	2.87(0.23)		
	Not realistic	2.76(0.00)		
The experience of hearing for biomedical ethics	Yes	2.84(0.19)	-1.065	0.019 <.05
	No	2.90(0.30)		
I know about biomedical ethics	Yes	2.93(0.18)	2.783	0.067
	No	2.85(0.30)		
	Not interested	2.75(0.24)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present educational system of biomedical ethics	Enough	2.94(0.28)	2.105	0.802
	Not enough	2.83(0.23)		
The experience of conflict for biomedical ethical problem	Yes	2.88(0.36)	0.230	0.795
	No	2.88(0.23)		
	not interested	2.83(0.22)		
The intent to attend in class for biomedical ethics	Yes	2.87(0.25)	0.015	0.985
	No	2.88(0.34)		
	not interested	2.88(0.24)		

다' 2.76점으로 윤리적 가치관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 또한 높아지는 것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받은적이 있다'가 2.93점, '받은적 없다' 2.9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1.065, p<.05$ ).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알고있다'가 2.93점, '모른다' 2.85, '관심없다' 2.75점으로 나타났으며,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의 충분이 이루어 지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2.94점, '충분하지 않다'는 2.83점으로 나타났으며,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문제로 갈등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 응답자가 2.88점, 생명의료윤리교육의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참석하겠다' 응답자가 2.87점, '참석하지 않겠다' 2.88점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 IV. 고찰 및 결론

윤리적 가치관이란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여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다[15]. 의료 보건인에게는 이러한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이 의료기술 행위를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치위생계열 학생의 인간생명에 대한 윤리의식에 관하여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하였다.

치위생 계열 과 비 치위생계열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종교'( $\chi^2=22.59, p=.000$ ), "음주"( $\chi^2=25.69, p=.000$ ), '운동' ( $\chi^2=7.67, p=.030$ )의 경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는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은 치위생계열 학생은 '매우 확고하다'가 18.6%, '확고하다' 29.9%였고 비 치위생계열 학생의 경우 '매우 확고하다' 15%, '확고하다'43.0%로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8.942, p=.030$ ). 비 치위생계열 학생의 경우 생명의료윤리의 가치관이 더

욱 확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의 연구에서 또한 보건의료인보다 일반인에게서 윤리적 가치관이 확고하다고[16] 조사되어 같은 결과를 보였다.

생명의료윤리에 관하여 들어본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치위생계열 학생과 비 치위생계열 학생은 각각 48.5%, 29.0%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7.864, p=.005$ ). 최근 간호사나 치과위생사 대상의 연구에서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치위생(학)과 학생들 대상의 연구에서도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86.8%로 높게 나타난다[11]. 간호사의 경우는 생명의료 윤리 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가 낮고 관심이 없다는 결과도[8] 조사되어왔다. 치위생계열의 학생들에게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료되어진다.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치위생계열 학생은 42.2%, 비치위생계열 학생은 43.0%가 '알고있다'로 응답하여( $\chi^2=24.311, p=.0000$ ) 차이를 보였다. 생명의료윤리 의식 차이를 하위영역에 따라 살펴보면, 치위생계열 학생과 비치위생계열 학생 모두 '태아진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치위생계열은 '장기이식'이 비치위생계열은 '안락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과 대상으로 한 생명의료윤리 의식 조사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17]. 이는 사람들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만 개인의 건강, 생애, 권리, 경제적 상황 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현상을 영한 결과이고[2] 대상자들의 생명 존엄성과 함께 여성의 선택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18]. 여기에서 우리는 임신중절을 의사와 임부 사이의 개별적인 문제로 간주해서도 안되고 여성과 태아 모두의 생명존중과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한윤리 교육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19].

생명의료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조사한 결과 윤리적가치관이 '매우 확고하다'가 2.99점, '확고하다' 2.76점, '상황에 따라 바뀐다' 2.84점, '관심없다' 2.68점으로 윤리적 가치관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

의식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3.623, p<.05$ ).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치위생계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진다.

비치위생계열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경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2.88점,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2.86점 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0.447, p<.01$ ).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받은적 있다’가 2.93점, ‘받은적 없다’ 2.9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1.065, p<.05$ ). 본 연구결과 치위생계열 학생이 비치위생계열 학생에 비하여 윤리적 가치관 및 의식의 차이를 보이지만 띄어나게 높은 가치관을 가지거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치위생계열 학생들에게서 교과과정에서의 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윤리의식을 확립하기가 일반 비치위생계열 학생과 다르지 않은 환경이어서 나온 결과라 사료되어진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소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출법에 의해 선정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전 치위생계열학생과 비치위생계열학생으로 확대해석하기가 어려우며, 생명의료윤리의식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이기에 대상자의 자기보고 척도에 의한 조사연구로 결과를 분석하였기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치위생계열 대학생의 치과위생사로서의 자결향상이나 가치관 형성의 차원을 넘어 복잡한 현실에서 요구되어지는 생명의료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생명의료윤리에 관하여 들어본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치위생계열 학생이 비치위생계열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생명의료윤리 의식 차이를 하위영역은 치위생계열 학생과 비치위생계열 학생 모두 ‘태아진단’이 가장 높았으며, 치위생계열은 ‘장기이식’이 비치위생계열은 ‘안락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받은적이 있다’는 대상자가 ‘받은적 없다’는 대상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치위생계열의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확립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어진 바 치위생과 교과과정에 개설되어 윤리의식을 확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학년별 차이와 교육 유무에 따른 확대연구 및 생명의료윤리 의식 확립에 영향을 치질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김은애, "출생 전 생명에 대한 헌법적 고찰: 태아 및 배아의 생명권과 그 제한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0권, 제1호, pp.39-75, 2009.
- [2] 하주영, 김동희, 황선경, "간호사의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의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5권, 제2호, pp.216-224, 2009.
- [3] 양재섭, 구미정, "대학교육현장에서의생명윤리교육 대구대학교의사례를중심으로," 생명윤리, 제10권, 제1호, pp.1-16, 2009.
- [4] 조미경, "간호과와 비간호과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비교," 디지털정책연구, 제1권, 제4호, pp.311-320, 2013.
- [5] 문미영, 정애화,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및 생명의료윤리 의식과의 관련성 조사 연구," 생명윤리, 제13권, 제2호, pp.49-62, 2012.
- [6] E. J. Park, *Laws and ethics in bioethical society*,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Seoul, 2000.
- [7] 이세정, *치과위생사의 윤리적 성향과 전문직업성 및 윤리적 직무행동*,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2012.
- [8] 권윤희,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3권, 제2호, pp.262-272, 2009.



- [9] 안성희, "한국간호윤리연구에 대한 양적분석,"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2권, 제3호, pp.261-274, 2009.
- [10] 배성숙, 노희진, 홍수민,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윤리적 책임감에 대한 연구,"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제14권, 제3호, pp.41-50, 2013.
- [11] 이선미, 강부월, 김창희, "치과위생사의 윤리적 딜레마," 한국치위생과학회지, 제10권, 제4호, pp.259-264, 2010.
- [12] 김윤정, 장윤정,곽정숙, 김수남, "일부치위생과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제5권, 제1호, pp.1-5, 2005.
- [13] 김윤정, 임근옥, 유미선, "전남지역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윤리교육에 따른 도덕성 발달수준 평가,"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제8권, 제3호, pp.99-105, 2008.
- [15] 홍영숙,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적십자 간호대학 논문집, 제13권, pp.1-29, 1991.
- [16] J. Y. Lee,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to biomedical ethics," Report of Ministry of Healthy & Welfare, Vol.28, No.1, pp.32-39, 1999.
- [17] H. S. Je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Vol.18, No.3, pp.401-410, 2011.
- [18] 김은희, 이은주, "1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 간의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에 대한 비교,"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5권, 제1호, pp.78-95, 2012.
- [19] 엄영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학적 논쟁의 문제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2권, 제2호, pp.203-221, 1996.

저자 소개

윤성욱(Sung-Uk Yoon)

정회원



- 2003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위생과학과 석사졸업
- 2013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학과 박사졸업
- 2008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의료관계법규, 소아치과학, 산업보건학